

대격 전치사 a

김 은 경
서울대, 서어학

0. Introducción

서반아어 문법에 있어 서반아어를 제2외국어로 습득하는 사람뿐 아니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도 적지않은 문제점의 하나가 바로 대격 전치사 a의 사용이다. 많은 학자들이 아래의 예에서 보는 것처럼, 전치사 a를 대격 목적어가 '사람' 또는 '의인화된 사물'인 경우에 사용하거나, 문장에서 주어와 목적어를 구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요소로서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1) Veo a Juan.
- (2) Esto irritaba a todas las cabezas confusas.
- (3) El perro sigue al gato.

그러나, 이와 같은 판단기준은 다음과 유사한 문장들에서 a의 사용은 예외적으로 간주될 뿐 일반적 개념으로 정립되기에는 너무도 많은 약점을 지니고 있다.

- (4) a. He conocido hombres.
b. Si tuvieras novio.
c. No vi en mi vida hombre más atribulado.
- (5) a. Déjeme la muchacha, porque soy amigo de sus papás.
b. ¡Déjeme al muchacho, señor cura!
- (6) a. Al abandonar a Madrid.

- b. Al abandonar España.
 - c. Comprender la América española.
 - d. La necesidad de argentinizar a la Argentina.
- (7) a. Consiguieron ... **convencer** a los buques insurrectos.
- b. La perspectiva **más adecuada** para juzgar a esa centuria.

(4)a,b,c예문들은 명백히 '사람'을 목적어로 취하고 있으나 *a*를 사용하지 않았고, (5)a,b의 경우에는 사용여부가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6)a,b,c,d를 통해서 지명 앞에서 *a*를 예 사용하는가를 차치하더라도 그 사용자체도 (5)에서만큼이나 불분명하고 (7)에서는 전혀 주어와의 구별이 불가능하지 않은 문맥임에도 불구하고 전치사 *a*가 사용되어 있다.

대격 전치사 *a*의 사용여부와 진정한 판단기준을 제시하려는 연구들 또한 앞서 예시한 혼란스러운 사용현실 만큼이나 혼란스럽다. 일찌기 Bello (1981, 529)는 전치사 *a*의 사용이 어디까지나 목적어의 '인칭성'(personalidad)과 '한정성'(determinación)에 의거한다고 하였으며, 같은 맥락을 하는 한림원 문법이나 Gili Gaya, Seco 등도 이와 같은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비록 같은 맥락이라고 할지라도 Fernández Ramírez(1986)의 경우에는 방대한 문맥의 조사를 거쳐 비교적 현대적 형태에 가까운 대격 전치사 *a*의 사용분포(distribución)를 제시하고 있다.

구조내지 기능 문법의 범주내에서는 비교적 다양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데, 먼저 Cano Aguilar (1981)의 경우에는 동사의 의미와 통사적 특징에 의존하여 *a*의 사용 유무를 판단하려 했고, 이와 유사한 방법은 Roegiest (1980)의 연구에서 발견된다. Roegiest의 연구가 Cano Aguilar와의 차이는 주로 통사적 측면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점이다. 한편, 서반아어 동사의 보어체계(Complementación sustantiva)연구의 차원에서 *a + sust.acus.*를 집중적으로 분석한 Morera (1989)의 연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 방법론이 논리적 의미적 관점으로서 대격 전치사 *a*를 *a*전치사의 본래의 구조적 의미(sentido de punto final absoluto de la orientación)의 문맥적 변이형이라는 주장이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역사적, 통사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점은 자신이 앞선 연구(1988)에서 주장한 바를 스스로 비판 수정하는 것이어서 더욱 흥미롭다.

Morera의 논리적, 의미적 접근은 결국 대격 전치사 *a*는 전치사의 목적어이자

동사의 목적어인 명사와 함께 전치사구(Sprep)를 형성한다는 것으로 의미적 관점에서 통사적 관점으로서의 통합을 의미한다면, 이와 반대로 통사적 관점에 해당하는 ‘중의성’의 회피(desambiguación) 또한 ‘한정성’(determinación)의 개념을 의미적 관념으로 통합하려는 시도는 Brenda Laca(1987)에 의해 최근에 이루어진 바 있다. Brenda Laca는 기존의 대격전치사 *a*에 대한 연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세 가지의 이론적 관점아래 정리하였는데, 결론적으로 제시하는 바는 의미적, 화용적 관점이라 할 수 있는 ‘주제성’(topicalidad)의 여부와 *a*의 사용여부가 직결되어 있다고 한다. 물론, 뒤에서 상술한 기회에 다시 지적이 되겠지만, Laca가 제시하는 ‘주제성’(topicalidad)이 통사적 자질인지 아니면 화용적 자질인가의 여부도 의문이다.

이 밖에도 Hatcher(1942), Fish, Rebollo(1976) 등의 연구들을 나열할 수 있겠으나 앞서 나열한 연구들과 이렇다할 방법적 차이나 새로운 특징이 발견되지 못하고, 비록 전통문법 이후에 이루어진 연구이기는 하지만 내용적으로 전통문법이 주장하고 있는 사실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문제의 규명에 커다란 도움이 되지 못한다.¹⁾

우리는 본 논문을 통해, 대격 전치사 *a*의 사용여부가 결국 Bello가 제시한 ‘인칭성’(personalidad)과 ‘한정성’(determinación)이라는 의미적 자질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재확인할 것이며, Bello가 언급한 ‘한정성’의 개념을 확장하여 ‘지시성’(referencialidad)이라는 화용적 자질로서 새로이 인식하여 Bello가 해결하지 못한 현상들이 이 자질의 표현여부에 의거하여 일정하게 대격 전치사 *a*의 사용과 관련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전치사 *a*의 사용을 편의상 통시적 관점, 의미적 관점 및 통사적 관점에 따라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장하는 화용적 관점이 어떻게 앞선 기준들의 약점을 보완해나가는가

1) M. A. Rebollo Torio, G. T. Fish 및 A. G. Hatcher의 연구는 주로 대격 전치사 *a*의 ‘중의성’의 회피(desambiguación)라는 통사적 기능에 중점을 둔 연구들이다. 특히, Rebollo의 경우에는 전치사 *a*의 사용이 Pottier가 제시하는 ‘개별화’의 의도(intención de singularización)라는 의미적 동기로 결정된다는 점에 근거하고 있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이론화하지 못하고, 전통문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분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Rebollo Torio, M.A., “Algunas observaciones sobre la presencia/ausencia de *a* mas complemento directo”, *RLA*, 14-15, 1976-1977, pp. 49-57; Fish, G.T., “*A*” with Spanish Direct Object”, *Hispania*, pp. 80-85; Hatcher, A.G., “The Use of *a* as a designation of the Personal Accusative in Spanish”, *MLN* 57, 1942, pp. 421-429 참조.)

를 분석해 보기로 하겠다.

1. Perspectiva histórica

대격 전치사 *a*의 사용에 대한 통시적 연구는 서반아어에 국한되어 기술된 것 보다는 로망스언어학내에서 다른 로망스어에도 공통된 현상으로서 광범위한 비교연구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C 후반에 출판된 Diez(1876)의 *Grammaire des langues romanes*를 시작으로 Meyer-Lübke(1899), Brauns(1909), Hanssen(1913) 등의 연구로 이어졌고, 이후 Meier(1948), Ramson(1961), Hills로 그 전통이 계승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서반아어에 국한된 본격적인 연구는 Keniston(1937)과 Lapesa(1964)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고, Cuervo(1981), C. Monedero(1978), Gili Gaya(1963) 등이 나름대로의 분석을 해내었다. 일찌기 Lapesa는 *a*의 사용과 생략을 정하는 분명한 근거는 없으며, 경우에 따라 동사의 의미, 명사(목적어)의 특정성(determinación)의 정도, 그리고 다양한 심리적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²⁾고 언급한 것처럼, 통시적 연구도 공시적 연구만큼이나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 상반된 견해를 보이기도 한다.

앞서 언급한 여러 연구들은, 우리의 판단에 의거하면 특성상 다음의 세 가지의 기준내에 분류 가능하다.

1.1 Animado/inanimado

대격 전치사 *a*의 사용여부는 목적어로 사용된 명사가 의미적으로 ‘생물’(ser animado)/‘무생물’(ser inanimado)의 구분과 일치한다는 관점의 대표적인 연구는 Meyer-Lübke (1899)에 의하여 이루어졌다.³⁾

2) Lapesa, R., “Los casos latinos: restos sintácticos y sustitutos en español”, *BRAE*, XLIV, p. 77.

3) Diez는 ‘생물’ 목적어가 동작의 주체가 아닌 대상인 것을 명시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이라고 주장했고, Brauns도 같은 원인으로 전치사 *a*가 변별적 표식으로서 사용되었다고 했다. 또한, 대격 전치사 *a*가 11세기 이전에는 사용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11세기 중엽에야

로망스언어학의 대가인 Meyer-Lübke는 서반아어에서 직접목적어가 생물 (seres animados)일 경우 전치사 *a*가 사용된다고 했고, 서반아어는 문법적으로 생물과 무생물을 구분하여 문장내에서 기능상 전자가 능동적(activo)이라면 후자는 수동적(pasivo)이라는 개념에 근거한다고 하였다. 또한, 이와 같은 생물/무생물의 구분에는 전치사 *a*의 사용이 다음에서 보는 것처럼 무생물에도 확장된다고 보았다.

- (8) a. Llamar al oro vil metal.
- b. Las aves saludan a la aurora.

아울러, 동사 또는 목적어로 사용된 명사의 의미와 무관하게 전치사 *a*의 사용이 허용되기도 하는데, 그 사용원인은 목적어를 다른 문장요소와 구별하는데 있다고 간주했다.

- (9) Unos anteojos que hacen parecer oro al cobre y a la pobreza riqueza.

한편, Ramson은 고대서반아어에서 인칭대명사 앞에 사용된 전치사 *a*에 대한 연구를 통해, 그 사용목적이 ‘중의성’(ambigüedad)을 회피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한 후, 의미적으로는 (10)에서 보이는 것처럼 ‘강조’(exaltación)의 표현이었다고 한다.⁴⁾

- (10) a. A ti me acomiendo. (Milagro de N. Señora 205)
- b. A ti te agradezco. (Cantar de Mio Cid)
- c. Qui a mi quisiere escuchar a creer. (Mil. 862)

ad ella una matabit (‘a la una mató’)와 같은 문맥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Diez, *Grammaire des langues romanes*, traducido por Fatio y Gaston París, París, 1876, III, pp. 91-92; Brauns, *Über den prepositionalen Accusativ im Spanischen*, Hamburg, 1909, II, p. 68의 재인용, Hills, “The accusative “a””, *Hispania* III, pp. 216-217 참조.)

4) Ramson, H., “The use of A + Personal Pronoun in old Spanish”, *Bulletin of Hispanic Studies*, 38, p. 51 참조.

Ramson의 이와 같은 연구는 오늘날의 서반아어에서 인칭대명사를 목적어로 취할 때 거의 모든 경우 전치사 *a*가 사용되는 점을 감안하면 시사하는 바가 매우 축소되지만, 중요한 것은 Ramson의 연구가 대격 전치사 *a*의 사용에 관한 역사적 발전의 3단계 가설⁵⁾을 제시한 Meier(1948)의 연구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이며, 나아가서는 그 셋째단계에 해당하는 서반아어에서는 전치사 *a*는 사람을 지칭하는 목적어와 사물을 지칭하는 목적어의 구분에 사용되었다는 새로운 가설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1.2. Desambiguación

서반아어는 어순이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주어가 동사 뒤에 나타나는 경우도 빈번하고, 이에 못지않게 목적어도 동사 앞에 나타나기도 한다. 주어가 사람이고 목적어가 사물인 경우에는 어순이 문장의 의미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목적어가 사람이거나 주어와 목적어가 모두 사물인 경우에는 자유로운 어순의 의미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서반아어의 통사적 특성을 근거로 하여 대격 전치사 *a*의 사용을 설명하려는 시도는 Hills에 의해 이루어졌다.

Hills⁶⁾는 라틴어의 격어미가 사라진 후 초기서반아어에서는 다음의 두 방법으로 격을 대체한 것으로 간주한다.

- (i) 불어의 경우처럼, 주어 + 동사 + 목적어의 어순
- (ii) 간접 및 직접목적어 앞에 전치사 *a*의 사용

5) H. Maier의 대격 전치사 *a*의 3단계 가설은 다음과 같다.

(1) 라틴어 여격의 대체로서 세 대명사들이 취하던 전치사 *a*를 약세 대명사들도 여격과 대격을 구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단계.

(2) 전치사 *a*의 사용이 대격 대명사에 일반화하는 단계.

(3) 대격 목적어 기능의 '사람'을 의미하는 고유명사와 보통명사에 확대적용하는 단계.
Maier는 이울어 제3단계가 이루어지게 된 원인으로써 등위접속문, 비교문 등에서 인칭 대명사나 고유명사와 함께 보통명사가 사용되는 경우 전치사 *a*가 유추적용되는 점과 주어와 목적어를 구분하기 위한 변별적 요소로서의 *a*의 사용 등을 지적한 바 있다. (Maier, H., "Sobre as origens do acusativo preposicional nas linguas románicas", *Ensayos de filología románica*, 1948, pp. 115-164 참조.)

6) Hills, "The accusative "A"", *Hispania* III, p. 218 참조.

(ii)의 방법은 Hills가 Cantar de Mio Cid에서 발견한 아래의 예문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a*의 사용이 일정하지 않았다.

- (11) a. Veremos vuestra mujer.
- b. Veré a la mujer.
- (12) a. Casastes sus hijas.
- b. Adujesen a sus hijas a Valencia.

Hills⁷⁾에 의하면, 이와 같은 현상은 곧 *a*의 규칙적인 사용으로 정착되었고, 특히 목적어가 사람인 경우에 가장 빈번하게 적용되었고, 주어와 목적어가 모두 사물인 경우에도 적지 않은 빈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 (13) a. Juan mató a Pedro.
- b. A Pedro mató Juan.
- c. Mató Juan a Pedro.
- (14) a. El adjetivo modifica al nombre.
- b. Al nombre modifica el adjetivo.
- c. Modifica el adjetivo al nombre.

(13)과 (14)에서 볼 수 있듯이, 어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전치사 *a*는 목적어를 주어와 구분하기 위한 변별적 요소로 작용한다. Hills의 주장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중의성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치사 *a*가 사용된다는 것이며, 목적어가 사람인 경우 가능한 동작의 주체(agente potencial)로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더 빈번한 사용이 요구되지만 기원은 어디까지나 동사의 목적어를 지칭하기 위한 부가적 수단이라는 점에서 1.1에서 언급된 Meyer-Lübke와 Ramson의 사람 또는 생물을 지칭하는 전치사 *a*라는 주장과는 상반된 관점이라 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관점은 Cuervo (1981, 482)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데 Cuervo는 사람이 목적어인 재귀수동문들은 16-17C에는 다음의 (15)처럼 사용된 명사구가 주어인지 목적어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7) Ibid.

(16)에서처럼 동작의 객체인 목적어 앞에 전치사 *a*를 사용했다고 한다.

(15) a. Se mataban los cristianos.

b. Se degollaron los catalanes.

(16) Fue recibido con grandes juegos y danzas, como se suele recibir a los reyes que de alguna conquista vienen (1981, 482).

(16)에서 *los reyes*는 Hills가 주장하는 것처럼 가능한 동작의 주체로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명사구가 동작의 객체로서만 작용하게 만드는 방법은 전치사 *a*를 그 앞에 사용하여 기능적으로 목적어임을 명시하는 것이다.

1.3. Analogía del dativo

Hanssen(1913, 296)은 대격 전치사 *a*는 여격에서 유추된 것으로 전치사의 사용여부를 통해 사람목적어와 사물목적어의 구분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Gili Gaya (1963, 9)도 초기서반아어에서는 대격과 여격의 혼란된 사용으로 인해, 특히 사람이 목적어일 경우 사물목적어의 경우보다 동사의 동작에 더욱 밀접하게 관련하기 때문에 초기의 문헌에서 자주 사용되었다고 주장한다 (veré a la mujer, Cid, 229).⁸⁾ 1.1에서 잠시 언급했던 것처럼 Meier (주 5 참조)가 제시하는 대격전치사 *a*의 사용의 3단계 발전과정중 제1단계는 다음과 같다.

(i) 대격과 여격의 약세 대명사가 구분을 명확히하기 위하여 강세 대명사들이 라틴어의 여격을 대체하여 전치사 *a*를 취했던 것처럼 약세 대명사들도 전치사 *a*를 취하는 단계.⁹⁾

(i)에서 상술되어있는 것처럼, 약세 대명사의 경우 격의 구분이 불분명했기

8) RAE, *Esbozo de una nueva gramática de la lengua española*, Espasa-Calpe, Madrid, 1973, p.372 참조.

9) Maier의 3단계 가설을 Ramson은 강력하게 지지하지만, Ramson은 Maier의 1단계 가설이 약세 대명사의 잉여적 사용 (*me ... a mí*)이 강세 대명사와 약세 대명사의 혼동이 주요한 원인이었다고 보는 관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Ramson은 여격과 대격의 혼란은 *a + disjunctive pronoun*의 형태가 완전하게 정착한 연후에 시작되었다고 본다. (Ramson, *op. cit.*, p. 53 참조.)

때문에 여격의 표기로서의 *a*가 대격에도 확장된 것이 바로 오늘날 대격전치사 *a*의 기원이라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학자들이 주장하는 여격에서 유추되었다는 대격 전치사 *a*의 기원가설에 Lapesa와 Cano Aguilar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한 바 있다.

Lapesa에 의하면¹⁰⁾, *adulari*>*adular*, *auscultare*>*escuchar*, *curare*>*curar*, *imitare*>*imitar*, *invadere*>*invadir*, *maldicere*>*maldecir*등의 동사는 라틴어에서 의미의 변화 없이 자동사로 사용될 경우 여격을 취하였고, 타동사로서 전치사를 동반하지 않는 대격과 함께 사용되었으나 서반아어에서는 오로지 타동사로만 사용되며 사람목적어인 경우에는 *a*와 함께, 사물목적어는 *a*없이 사용되었다고 했고, Cano Aguilar (1983, 368)도 *ayudar*, *acompañar*, *resistir*, *obedecer* 등의 동사의 목적어에 전치사 *a*의 사용은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Lapesa가 나열한 동사들과 같은 부류로서 자동(여격) 및 타동(대격)구문을 공히 만들 수 있는 통사적 특성에서 유래되었다고 간주한다. 아울러 Cano Aguilar는 *asistir*, *servir* 및 *obedecer*, *resistir* 등의 동사들은 라틴어에서 여격과 함께 자동사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타동사로 대격을 요구하면서 본래의 자질인 여격과의 혼돈으로 전치사 *a*를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1.4. 지금까지 기술한 대격 전치사 *a*의 사용에 대한 통시적 관점에서의 세 가지 서로 다른 가설들을 종합해 보면, 그 어느것도 절대적으로 옳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오히려 상호보완적이라고 할 수 있다. 첫번째로 제시한 생물/무생물 목적어의 구분가설은 두번째로 언급한 중의성을 회피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치사 *a*가 결국 그 발생과정상 생물(특히 사람)목적어가 가능한 동작의 주체로 해석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에서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두번째 가설은 첫번째 가설을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로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세번째로 제시한 여격의 유추가설은 라틴어어원에서 발생의 근원을 찾으려는 시도이기 때문에, 첫번째와 두번째 가설이 어느 정도 현상학적 판단이라면, 이는 현상의 내면에 잠재해 있는 원인을 규명하자는 것이며, 여격이라는 것은 Dietrich가 정의하는 것처럼 ‘Partnerobjekte’ (objetos de interacción)이기 때문에 동사의 행위의 주체로서 관여할 수 있는 사람목적어가 대다수라는 것을

10) Lapesa, *op. cit.*, p. 76 참조.

감안할 때¹¹⁾, 세번째 가설 또한 첫번째와 두번째 가설과도 일맥상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대격 전치사 *a*의 사용이 역사적으로 라틴어의 격이 로망스에서 전치사로 대체되었다는 일반이론의 부분적 현상이며, 구체적으로는 (i) 여격과의 유추 (ii) 생물목적어의 적용 (iii) 사물목적어로의 확대의 순서를 거쳐 오늘날에 이르지 않았나하는 조심스런 판단을 내려 본다.

2. Criterio lógico-semántico

공시적 관점에서 대격 전치사 *a*의 사용을 논리적 의미적 판단기준에 의거하여 설명하려는 시도는 대부분의 전통문법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논지는 Bello의 문법에서 제시되었다.

Bello (1981, 529)는 전치사 *a*는 대격목적어 앞에 가끔 나타나는데, 이러한 경우 '인칭성'(personalidad)과 '한정성'(determinación)을 의미한다고 서술한 바 있다. Bello가 주장하는 이러한 두 가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규명하기 위해 다음의 예문들을 먼저 살펴보기로 하자.

(17) a. He leído a Virgilio.

b. Don Quijote cabalgaba a Rocinante, y Sancho Panza al Rucio.

-
- 11) Dietrich는 대격 목적어와 여격 목적어는 의미적으로 각각 'objeto de disposición' 및 'objeto de interacción'으로 대답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대격 목적어가 전치사 *a*를 동반하면, 곧 여격 목적어는 일반적으로 '사람'이거나 '생물'을 지칭하며 동시에 '특정적' 의미를 지닌 것이기 때문에, 문장내에서 동작의 주체로서 기능할 가능성으로 인해서 여격과 기능상의 일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한편, Marcial Morera가 정의하는 *verbo + sust./verbo + a + sust.*의 대답은 Dietrich의 이론과는 달리 동사가 목적어를 이루는 명사구와 함께 의미적으로 한 단위를 이루는가 아니면 다른 단위를 이루는가를 측정하는 것으 의미적 'incorporación'의 개념에 오히려 가깝다고 할 수 있다. (Dietrich, W., "Romanischen Objektmarkierung und Verhältnis von direktem und indirektem Objekt", Tübingen, pp. 69-79의 제인용, Laca, B., "Sobre el uso del acusativo preposicional en español", *Romanistisches Jahrbuch*, 38, 1987, p. 300 참조, Morera, M., *Sintaxis lingüística vs sintaxis lógica: La complementación sustantiva del verbo español*, Tenerife, pp. 135-160 참조.)

- (18) a. He visto a Londres.
b. Las tropas atravesaron el Danubio.
- (19) a. Conozco al gobernador de Gibraltar.
b. El niño requiere un maestro severo.
c. Busco criados.
d. El presidente eligió los intendentes y gobernadores.
- (20) a. Fueron a buscar un médico experimentado, que conociera bien las enfermedades del país.
b. Fueron a buscar a un médico que gozaba de una grande reputación.
- (21) a. Hay hombres que para nada sirven.
b. Cultiva sus haciendas.
c. La primavera precede al estío.
- (22) a. Llamar a la muerte.
b. La escuela de la guerra es la que forma los grandes capitanes.
c. Prefiero el discreto al valiente. (Bello, 529-530)

Bello는 이성적 존재인 사람을 가리키는 고유명사가 가장 ‘인칭적’(personal)이고 ‘한정적’(determinado)이기 때문에 (17)a처럼 항상 전치사 *a*를 동반하고, (17)b에서처럼 비이성적 동물일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했다. 그러나, (18)a의 경우에는 고유명사가 관사의 한정 없이도 ‘한정성’을 갖게되므로 전치사 *a*가 요구되고, (18)b의 경우는 관사 *el*이 ‘한정성’이라는 자질의 표식이라고 서술함으로서 오히려 이중적으로 한정된 경우에 전치사 *a*의 사용이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을 뿐 아니라, Fernández Ramírez(1986, 186)가 잘 지적하였듯이, Bello가 관사와 전치사의 문법적 기능을 마치 동일시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오해의 소지도 안고 있다.¹²⁾ (19)와 (20)의 예문들은 모두 사람을 지칭하는

12) Fernández Ramírez는 ‘사람’과 ‘사물’을 공히 지칭할 수 있는 고유명사들의 경우 관사가 첨가될 경우 ‘사물’을 의미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Bello가 *he visto a Londres*와 *las tropas atravesaron el Danubio*의 비교에서 목적어의 ‘한정성’이 각각 전치사 *a*와 정관사 *el*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기술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오히려 정관사는 소유사나 지시사처럼 ‘한정성’을 유도하는 요소로서 오히려 더 전치

보통명사가 목적어로 사용된 경우인데 관사의 한정 정도에 따라 전치사 *a*의 동반여부가 결정된다는 판단이다. (19)a는 전치사 *a*를 요구하는 전형적인 경우이고, (19)b와 (19)c는 ‘한정성’의 부재로 전치사가 사용되지 않은 경우이며, (19)d는 정관사의 출현에도 불구하고 명사들이 특정인물을 지칭하지 않고 조직에서의 직위만을 지칭하기에 전치사 *a*가 사용되지 않은 경우이다. (20)의 a와 b의 대조는 같은 형태가 수식하는 관계문의 성격에 따라 각각 한정의 정도가 다르다는 판단으로 전치사 *a*의 사용이 결정되었고, 일반적으로 접속법 관계문의 수식을 받는 선행사는 불특정적(*inespecífico*)이고, 직설법 관계문의 수식을 받는 선행사는 특정적(*específico*)이라는 이론과도 부합한다.¹³⁾ 마지막으로 (21)의 경우에는, b는 전형적인 사물 목적어로 전치사를 요구할 수 없지만, a는 haber동사의 독특한 통사적 특성으로 인해 목적어가 사람이지만 전치사가 사용되지 않았고, c는 사물 목적어임에도 불구하고 preceder동사의 통사적 특성이 전치사를 요구한다고 설명하였다.

결국, Bello의 이론은 (21)a, c의 경우처럼 특수한 통사적 제약이 존재하지 않는 한 목적어가 사람을 지칭하든가(*personalidad*), 아니면 사람을 지칭하더라도 그 ‘한정성’(*determinación*)의 정도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전치사 *a*의 사용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또한, Bello(1981, 531)가 예외적인 경우로 간주하는 의인화(*personalidad ficticia*), 사물화(*despersonalización*) 및 중위성의 회피(*para evitar ambigüedad*)도 예문 (2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외를 형성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목적어가 실제적이건 가상적 은유를 통해서이건 상관없이 ‘인칭성’(*personalidad*)이라는 자질의 존재여부와 관련된다고 볼 수 있으며(a, b의 경우), (22)c는 (21)a, b의 경우처럼 특정동사의 통사적 제약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된다.

사 *a*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Fernández Ramírez, S., *Gramática española: 4 El verbo y la oración*, Arco/Libros, Madrid, 1986, p. 196, 주 105 참조.)

- 13) M. L. Rivero는 1975, 1976년 두번에 걸쳐 Donellan이 주장하는 정명사구의 지시적/비지시적(*referencial/atributivo*) 의미의 대립은 서반어에 있어서 직설법 관계문과 접속법 관계문의 수식을 받는 정명사구가 각각 ‘특정적’, ‘불특정적’ 의미를 표현하는 것에 적용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Rivero, M.L., “Referential properties of Spanish Noun Phrases”, *Language* 51, 1975, pp. 32-48 및 “Specificity and Existence: A Reply”, *Language* 53, 1976; Kim, U. K., “Análisis pragmático del subjuntivo en las oraciones de relativo restrictivas”, *Actas del III Congreso de Hispanistas*, Tokio, pp. 163-179 참조)

그렇다면, 과연 Bello가 제사한 ‘인칭성’과 ‘한정성’의 두 자질이 과연 일반성을 지닐 수 있는지 각각 살펴보기로 하자.

2.1. Personalidad

사람을 지칭하는 명사들의 의미를 성분 분석할 때 일반적으로 나열할 수 있는 것들은 다음과 같다.¹⁴⁾

- (23) a. [$\pm$ propio]
- b. [$\pm$ humano]
- c. [$\pm$ masculino]
- d. [$\pm$ adulto]
- e. [$\pm$ plural]
- f. [$\pm$ concreto]
- g. [$\pm$ contable]

물론, 이 밖에도 [$\pm$ específico], [$\pm$ referencial] 등의 자질이 첨가될 수 있지만, 이러한 자질들은 순수한 의미적 자질이 아니고 화용적 자질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일단 제외하고 대격 전치사 *a*의 동반여부와 연관지어 보기로 한다.

(23)에서 나열한 자질 중 c의 [$\pm$ masculino]는 전치사 *a*의 출현여부와 무관한 것으로 판단되고, e의 [$\pm$ plural]은 관사의 동반여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있어 ‘한정성’(determinación)의 정도와 오히려 관련이 있으므로 이를 편의상 [$\pm$ colectivo]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23)을 통하여 제시된 이러한 자질들은 각각 개별적으로 전치사 *a*의 동반여부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자질과의 조합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지적할 필요가 있다. *a*의 [$\pm$ propio]는 b의 [$\pm$ humano]와 조합을 통해서만이 (17)a의 *he leído a Virgilio*와 같은 문장에서의 *a*사용을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17)b의 *...cabalgaba a Rocinante*를 설명하기 위하여는 [$\pm$ humano]

14) Geckeler는 명사의 성분분석(análisis componencial)의 기본적인 의미자질로서 [$\pm$ humano], [$\pm$ animado], [$\pm$ masculino], [$\pm$ adulto]를 어휘분석의 기본적으로 삼고 있다. (Geckeler, H., *Semántica estructural y teoría del campo léxico*, Gredos, Madrid, 1984, pp. 280-282 참조.)

를 [$\pm$ humano, animado]로 확대해석하여 그 이해가 가능하지만, 서론에서 문제 시된 (6)a의 *Al abandonar a Madrid*의 경우와 Laca(1987, 291)가 거론하는 다음의 예문을 설명할 수 없다.

(24) a. Pero creo que va a tocar Bach, Schubert ...

b. ¿Oye, y en todo el año se va a procurar en todo el mundo tocar mucho a Beethoven?

(6)a의 경우, *Madrid*를 마치 의인화하여 애인과의 이별처럼 해석할 수도 있겠으나 그러한 해석의 가능성은 고유명사 *Madrid*보다는 *abandonar*동사의 의미와 오히려 관련한다고 판단되며, (24)a를 Bello가 제시한 예외적 현상인 (22)b와 같은 부류로 간주하여, 목적어 *Bach*를 'la pieza de Bach'로 이해하여 전치사의 부재를 설명하더라도 같은 해석이 가능한 (24)b에서의 전치사의 출현을 설명하기 어렵다. d의 [$\pm$ adulto]라는 자질은 [$\pm$ humano]임에도 불구하고 전치사의 출현이 거부되기도 하는 다음과 같은 문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25) ¡Déjeme la muchacha, porque soy amigo de sus papás...!
(Fernández, 170)

(26) a. Tanto amaba las criaturas. (Ibid, 171)

b. Después tomó el niño, con él en brazos sigo lavando. (Laca, 291)

c. ¿Necesitaré describir este joven? (Fernández, 172)

일찌기 Bello (1981, 520)는 '인칭성'을 정의할 때, 사람을 '이성적 존재'로 인식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25)와 (26)의 예문에서의 전치사 *a*의 부재가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adulto]라는 의미자질로서 설명이 가능하다. 물론, (25)와 (26)의 예문에 전치사 *a*를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러한 경우 문법성에도 변함이 없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 더 넓은 문맥적 상황이나 화용적 상황을 고려하여, 명사 자체의 의미와는 별개의 판단기준을 적용해야하므로 여기에서 분석의 기준이 되고 있는 논리적 의미적 범주를 벗어나게 됨으로 일단 보류해 두기로 한다.

'인칭성'(personalidad)의 의미와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자질은 앞에서 잠시 소개한 바 있는 [$\pm$ colectivo]의 자질이다. 집합명사의 거의 대

부분을 발췌하여 정리한 Fernández Ramírez (1986, 179)는 사람의 집단, 전체, 총체 또는 계층을 의미하는 집합명사는 특정성(especificidad)과 무관하게 전치사 *a*를 동반한다고 하였다.

- (27) a. Trataba bien a la gente que tenía.
 b. Nunca es posible satisfacer a todo el mundo.¹⁵⁾
 c. Era capaz de poner en movimiento a media humanidad.
 (Fernández, 180)

또한, Fernández Ramírez (1986, 181)는 (27)에서처럼 사용된 전치사 *a*가 거의 차이가 없는 문맥들인 (28)에서는 전치사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기술한 바 있다.

- (28) a. Representar poéticamente la humanidad (....) es la idea fundamental del idilio.
 b. Los heroicos mártires que asombraron el mundo con sus penitencias.
 c. Ir sólo allí para ver la gente vale la pena. (Fernández, 181)

(27)과 (28)이 보여주는 대조적 상황에 대하여 Fernández Ramírez는 어떠한 구체적인 원인분석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단지 주를 통해서 (28)b의 *el mundo*는 사람 전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 전체(*el conjunto de las cosas reales*)를 의미하는 경우라고 언급했으며, (27)b의 경우에는 전치사가 사람목적어를 요청하는 동사의 의미에 기인한다고 했다. 그러나, (27)a, c 및 (28)a, c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스페인 한림원 문법(1973, 374)은 사람을 가리키는 집합명사일 경우에도 행위의 대상이 집단 전체가 아니고 집단을 구성하는 개개인일 경우에만 전치사가 사용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27)과 (28)의 모든 예문들을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의미적 판단기준이 될 수 있다.

15) Fernández Ramírez는 부정대명사 *todo(s)*가 '사람'을 지칭하는 경우에는 전치사 *a*를 항상 동반하고, *todo(s)*가 부정 형용사로서 '사람'을 지칭하는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전치사를 동반한다고 지적했다. (Fernández Ramírez, *op. cit.*, p. 161 참조.)

2.2 Determinación

2장의 도입부분에서 소개했던 것처럼, Bello는 ‘한정성’을 판단하는 형태적인 척도는 관사의 유무에 있다고 시사한 바 있다. 이와 같은 판단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시한 예문들을 다시 살펴 보면, 한마디로 한정성의 정도는 정관사>부정관사>∅의 순서임을 암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Bello (1981, 530)는 다음과 같은 대조적 상황에 대하여,

(29) a. Aguardar a un criado.

b. Aguardar un criado.

(29)a처럼 전치사를 사용하는 동작의 주체(el que aguarda)는 마음속으로 특정대상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며, (29)b는 그렇지 않은 경우라고 설명한다. 아울러, (19)d의 (eligió a los intendentes)에 대하여 Bello가 사람이 아닌 직위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경우라고 판단한 것을 감안하면, 실제로 Bello가 문제화한 것은 관사를 통한 한정성의 정도를 구분하기보다는 명사의 ‘지시성’(referencialidad)의 판별인 것이다. 전통문법의 태두리내에서 화용적 개념인 명사의 지시성과 연관하여 대격 전치사 *a*의 사용을 언급한 학자는 Bello 외에 Fernández Ramírez 뿐이다.

Fernández Ramírez(1986, 173)는 전치사 *a*의 사용이 “구체적 상황속의 별개의 실재인물인가 아니면 가상적 인물 즉, 실재인물이 아닌 집단의 어떤 구성원도 될 수 있는 인물인가”의 차이에 의존한다고 했다. 여기에서 언급된 별개의 실재인물(persona actualizada, individualizada)은 바로 지시물의 특정성(referente específico)에 해당하고, 결국 Fernández Ramírez의 견해도 순수한 논리적 의미적 판단기준으로는 현상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불가능함을 암시하고 있다.

3. Criterio sintáctico

대격 전치사 *a*의 출현에 대하여 ‘인칭성’(personalidad) 및 ‘한정성’(determinación)의 개념만큼이나 중요하게 거론되는 것이 바로 ‘중의성’(ambigüedad)의 회피라는 가설이다. 우리가 1장에서 역사적 관점을 논의할 때, 중의성의 회피는 결국 주어처럼 동작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사람 목적어를 주어와 구분하려는 동기에서 전치사가 사용되었다는 가설이며, 이 또한 그 발생 근원을 살펴보면 대격이 여격을 유추하는 과정에서부터 기원했다는 사실을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역사적 변천과정이 암시하는 것은 단순히 의미적 판단기준만으로 다양하기 짝이 없는 모든 현상에 대한 분석이 불가능하며, 현상의 의미적 판단을 위하여 통사적 기준이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이다.

대격 전치사 *a*에 대한 통사적 연구는 개별동사의 특수한 통사적 지배, *a*를 요구하는 특정구문에 대한 분석, 전치사를 동반한 목적어를 모두 여격으로 간주하는 주장, 전치사구(Sprep)가설 등 다양한 내용과 방법이 존재한다.

우리는 먼저 가장 근본적인 문제의 제기라 할 수 있는 *a + sust.*가 대격 목적어인 경우가 명사구(SN)가 아닌 전치사구(Sprep)라는 Morera (1989)의 주장에 대하여 논의를 시작해 보자.

3.1. ¿SN o Sprep?

Morera(1989, 103-104)는 전치사 *a*는 그 구조적인 의미가 ‘최종 목적점’(punto final absoluto)이고 문맥의 구분에 따라 크게 두 가지의 변형된 의미를 갖는다고 한다.

- (30) a. Ir a Valencia, dirigirse a su casa.
- b. Partir a las seis, asar a la brasa, abrir a cincel, oler a rosas, derretirse al sol. (Morera, 104)

(30)a와 같은 동태적 문맥(contexto dinámico)에서는 움직이는 방향의 최종

목적지를 의미하고 (30)b와 같은 정태적 문맥(contexto estático)에서는 고정된 지점(puntualidad) 또는 시간적 공간적으로 병렬적 배치(yuxtaposición)를 의미한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대격 전치사 *a*를 요구하는 직접목적어는 다름아닌 (30)a에 나열한 '최종목적점'이라는 구조적 의미에서 파생하는 하나의 문맥적 의미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즉, Morera (1986, 160)가 궁극적으로 내리는 결론은 명사구인 *a + sust.*가 표현하는 '존중'(respeto)의 의미, '예의'(cortesía), 변별적 기능(función diacrítica) 등이 모두 앞서 언급한 구조적 의미(lengua의 차원)에서 파생된 문맥적 상황적 의미(habla의 차원)라는 것이며, 이에 대한 근거로 *a + sust.*가 명사구(SN)가 아닌 전치사구(Sprep)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¹⁶⁾

(31) * verbo + sust. / verbo + a + sust.

(32) verbo + a + sust. / verbo + sin + sust. / verbo + con + sust., etc.
(Morera, 137)

Morera(1989, 142)에 의하면, (31)과 같은 대격 전치사 *a/ø*의 대립은 이루어질 수 없고 (32)에서처럼 순수한 전치사들인 *a/sin/con* 등의 대립만이 가능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예문들을 제시하고 있다.

(33) a. usar de esto → usarlo

b. gozar de la paga → gozarla

(34) a. encontrarse con Juan → encontrárselo

16) Morera가 열거하는 *a + sust.*가 표현하는 존중(respeto)의 의미, 예의(cortesía), 변별적 기능(función diacrítica) 등은 Morera의 다음과 같은 가설에 근거한다.

1) Complemento endocéntrico o directo: verbo + sust. → lo.

2) Complemento exocéntrico o indirecto: verbo + a + sust. → le.

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a + sust.* 구조상의 명사는 *lo*가 아닌 *le*를 대명사로 취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며, 이로 인해 *a + sust.*는 실제로 대격이 아닌 여격이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a + sust.*가 표현하는 '존중'의 의미는 Cuervo도 언급했던 것처럼, *leísmo*가 저명작가들 사이에서 한동안 고급스러운 표현(elegancia)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le*가 usted를 지칭한다는 점에 근거한 것이고, 또한, '예의'라는 의미도 같은 동기에서 비롯되었다. 변별적 기능이란 *le*가 주로 '사람' 목적어를 대체한다는 통사적 기능을 의미한다. (Morera, 1989, op. cit., pp. 147, 156, 160 참조; Cuervo, J. R., *Diccionario de construcción y régimen de la lengua castellana*, Bogotá, 1953, p. 10 참조.)

- b. soñar con hacerse rico → soñarlo
 (35) a. creer en Juan → creerlo
 b. influir en alguien → influirlo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은 Morera의 주장을 대부분 수용할 수 없으며 그 이유를 하나씩 밝혀보도록 하겠다. 첫번째로, 대격 전치사 *a*가 구조적 의미인 ‘최종목적점’의 변이형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30)a,b에 나열된 모든 전치사구와 *veo a Juan*의 *a Juan*이 동일한 통사적 기능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 (36) a. ir a Valencia → ir allí
 b. partir a las seis → partir entonces
 asar a la brasa → asar así
 (37) Veo a Juan → Lo veo

(36)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순수한 전치사구들은 모두 시간, 장소 및 방법의 부사로 대체된다는 점에서 상황소(complemento circunstancial)로서 기능하지만, (37)에서는 대격 목적어(complemento directo)로 기능하기 때문에 전치사구라고 할 수 없다. 일찍이, Trujillo(1971, 33)가 대격 및 여격 전치사 *a*는 단순히 통사적 기능의 표식(mera indicación de función sintáctica)으로 대격은 lo, la, los, las의, 여격은 le, les의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전치사의 구조화 작업에서부터 제외시킨 것을 감안하면, Morera 자신이 1984년의 연구¹⁷⁾에서 대격 전치사 *a*가 전치사 *a*의 구조적 의미의 변이형이 될 수 없다고 인정하였던 것이 오히려 올바른 판단이었다고 볼 수 있다.

17) Morera는 1989년의 연구 이전에 서반아어의 전치사 구조와 그 사용 문제에 관한 방대한 연구논문을 발표한 바 있는데, 그 당시 Morera의 연구는 R. Trujillo의 전치사 이론을 근거로 하여 구조화 작업을 위한 전치사들 간의 대립을 설정할 때, 전치사의 어휘화(lexicalización), 동사의 전치사 지배(régimen preposicional del verbo) 등을 제외하였는데, 이때 대격 전치사 *a*의 사용이 바로 전치사의 본래의 의미와는 무관한 일종의 문법화 현상(gramaticalización)이라고 규정한 바 있으나, 1989년의 연구에서는 이와 정 반대되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Morera, *Estudio semántico del sistema preposicional del español contemporáneo*, Tenerife, Univ. de la Laguna, 1984. Tesis doctoral inédita, p. 137 참조.)

두번째로, (33), (34), (35)에 제시된 예문들은 대부분 동사의 전치사 지배(régimen preposicional del verbo)이며, Alarcos의 용어를 빌리자면 일종의 suplemento로서 여기에서 사용된 전치사구들은 본래의 기능인 상황소로서 작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Alarcos(1984, 156)는 suplemento가 상황소(aditamento)에 비해서 동일문장 내에 직접목적어 구문 뿐 아니라 suplemento 구문을 만들 수 있지만, 두 가지 목적어를 동시에 갖지는 못한다고 했다. 즉, (31)의 예문들은

- (38) a. usar esto (con cuidado) / usar de esto (con cuidado)
b. gozar la paga / gozar de la paga

(38)과 같은 대립이 가능하며, 이는 일부 동사들이 타동사로서 직접목적어를 취하거나 자동사로서 전치사를 통해서 목적어를 취할 수 있으며 두 경우 모두 상황소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suplemento는 기능상 직접목적어와 유사하고 목적어를 대명사로 바꿀 경우 (33), (34), (35)과 같은 변형이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Morera가 제시한 통사적 근거는 오히려 *a + sust.*가 전치사구가 아닌 명사구라는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3.2. Régimen verbal

특정동사가 대격 목적어 *a*를 취한다는 것은 동사의 통사적 특성이자 동시에 동사의 자체의미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2장에서 논의된 의미적 관점은 대격 목적어로 사용된 명사의 의미적 자질이 [+humano, animado]를 내포하는가가 주요한 주제였다면, 여기에서 기술하려는 통사적 관점은 그 관심의 대상을 동사에 두어 어떠한 목적어를 취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¹⁸⁾

18) Porto Dapena도 *a + sust. acus.*는 전치사구(Sprep.)가 아닌 명사구(SN)라는 주장과 함께 서반아어에는 직접목적어(implemento)가 두 종류가 있다고 했는데, 하나는 전치사 없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전치사를 사용하는 경우로 이때 전치사 *a*는 명사의 [+humano]라는 자질의 유무에 의해 결정된다고 했다. Cuervo는 전치사 *a*가 여격을 유도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 *a*고유의 방향의 의미는 희석되고 오히려 욕망의 어미에 가깝다고 언급한 바 있다. Cuervo의 이와 같은 지적도 *a + sust.*가 전치사구가 아닌 명사구라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여겨진다. (Porto Dapena, J.A., *Complementos argumentales del verbo: directo*,

Fernández Ramírez(1986, 168-189)는 대격 전치사 *a*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동사를 분류했다.

- (i) ‘사람’ [+humano] 목적어를 요구하는 동사:
 - a. Con *a*: buscar, encontrar, hacer, necesitar, querer, tener (p. 168), amar, adorar, matar, amenazar(pp. 175-176), besar, salvar, admirar, contaminar, convencer, pacificar, reclutar, satisfacer(p. 168), desconcertar, dominar, gobernar, maltratar, obedecer(p. 184).
 - b. Con *a* o sin *a*: convidar, curar, desnudar, engendrar, evangelizar, libertar, matar, secuestrar, sobornar, tratar(p. 168), buscar, cazar, comprar, conseguir, encontrar, hallar, merecer, necesitar, requerir (p. 175).
- (ii) ‘생물’ [+animado]의 감정 행위와 관련된 동사(con *a*): afligir, aquietar, bendecir, besar, implerer, incitar, llamar, maltratar, perdonar, plagiar, silbar, sorprender(p. 189).
- (iii) 물질적 행위(actos materiales)를 표현하는 동사(sin *a*): amarrar, aquietar, aparejar, cargar, desamarrar, desensillar, ensillar, maniatar, pesar, sujetar, uncir(p. 189).
- (iv) 사물 목적어를 요구하는 동사(sin *a*): describir, elegir, escoger, hallar, imitar, olvidar, pasar, reconocer, recordar, recorrer, situar(p. 184).

이와 같은 분류는 동사의 의미가 ‘사람’ 또는 ‘생물’ 목적어를 요구한다면 전치사를 동반하고, ‘사물’ 또는 ‘물질적 행위’와 관련하면 전치사를 동반하지 않는다는 대전제를 토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그 근본적 접근 방법이 대격 목적어의 [+humano, animado] 자질의 유무에 근거한 의미적 판단기준과 맥락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의미적 판단기준에서는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사물의 의인화(personificación: llamar a la muerte), 사람의 사물화(cosificación: elegir los intendentes)가 예외적으로 처리될 수 밖에 없는 이론적 한계가 노출되었지만, 동사를 통한 통사적 접근은 이러한 예외적인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동사의 의미에서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그러나 문제점은 buscar, encontrar, hallar, necesitar, querer, tener, amar,

indirecto, suplemento, agente, Arco/Libros, Madrid, 1992, p. 23 참조; Cuervo, *op. cit.*, p. 10 참조.)

conocer 등 수많은 동사들이 ‘사람’ 또는 ‘생물’ 목적어를 취하면서도 전치사의 사용이 교호 (a/ϕ) 되는 경우 (buscar a/ϕ un criado, amar a/ϕ una mujer 등)를 설명할 수 없다는 데 있다.

Fernández Ramírez (1986, 173)는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몇몇 동사에 있어서 그 문맥적 의미를 구분하고 있다.

- (39) a. querer un novio (‘desear’ o ‘procurar’)
- b. querer a un novio (‘amar’)
- (40) a. distinguir un hombre (‘percibir’)
- b. distinguir a un hombre (‘tener en particular estimación’)
- (41) a. despreciar un amigo (‘desaprovechar’)
- b. despreciar a un amigo (‘desestimar’)

이와 유사한 시도는 Bello (1981)와 Cano Aguilar (1981)에서도 일부 발견된다.

- (42) a. perder sus hijos (‘dejar de tener’)
- b. perder a sus hijos (‘corromper’) (Bello, 531)
- (43) a. convocar una reunión (‘organizar’)
- b. convocar a una reunión (‘llamar’) (Cano Aguilar, 372)

Morera(1989, 136)의 경우에는 목적어가 지칭하는 대상이 동일하다는 점과, 의미 차이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목적어가 동사와 의미적 통합이 이루어지는 경우 (verbo + sust.: +interrogación)와 그렇지 않은 경우(verbo + a + sust.: -interrogación)의 차이로 인해 파생된다는 점 때문에, 근본적으로 동사의 문맥적 의미구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Morera의 입장은 3.1.에서 살펴본 것처럼, 대격 목적어 a + sust.가 전치사구를 형성한다는 가설에서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맥적으로 동사의 의미가 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부인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의도로 이해할 수 있겠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39)-(43)의 예문들에서 지적된 의미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 단지, 그러한 문맥적 의미 구분이 (i)-(iv)에 나열된 모든 동사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여

기에서 거론된 동사의 통사적 지배가 대격 전치사 *a*의 출현을 설명하는 일반적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확인해줄 따름이다.

3.3. Otros factores sintácticos

대격 전치사 *a*의 출현에 대한 가장 순수한 통사적 판단기준은 ‘중의성’의 회피를 위한 통사적 기능의 표식으로서의 전치사 *a*의 사용이 결정된다는 가설이다. 다음의 예문들이 가장 전형적으로 지적되는 것들이다.

- (44) a. El adjetivo califica al sustantivo. (Hills, 218)
- b. Prefiero el discreto al valiente. (Bello, 532)
- c. El duque sin hablar palabras dio el niño al cura. (Cuervo, 14)
- d. El traidor Judas vendió a Jesús a los sacerdotes y fariseos. (Ibid)
- e. Anteponen los escritores gentiles al grande Alejandro a Darío, rey de los persas.... (Ibid, 15)

(44)a에서는 목적어를 주어와 구분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치사 *a*가 사용되었고, (44)b, c에서는 Bello(1981, 532)와 Cuervo(1981, 14-15)가 언급한 것 처럼 대격 목적어를 전치사 *a*를 동반한 다른 목적어와 구별하기 위한 방법으로 오히려 전치사를 사용하지 않았다. 한편, Cuervo는 (44)d는 관사없는 고유명사가 대격 목적어인 경우에는 전치사의 사용이 가능하지만, (44)e처럼 관사가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수용 불가능하지만 수식어가 첨가되었기 때문에 수용가능한 문장이 된다고 하였다.

물론, (44)d, e에서처럼 대격 목적어에 전치사의 사용이 이루어지는 경우, 선행하는 것이 대격이라는 점은 Bello와 Cuervo를 포함해서 한림원 문법(1973, 374)에서도 지적된 바 있지만, Bello(1981, 532)는 이러한 구문은 수용 불가능하며 다른 방식으로 표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우리의 관점도 대격 전치사 *a*의 사용원인이 변별기능이라면 (44)b처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우리가 (44)의 여러 예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의미적 중의성의 회피 현

상이 공식적으로 주어와 목적어의 구분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기능이 다른 목적어들 간에도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두 경우를 분리하여 각각 어떠한 통사적 조건하에서 발생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3.3.1. Distinción entre sujeto y complemento directo

주어와 목적어의 구분이 필요한 구문으로 첫번째로 비교구문을 생각할 수 있는데, Cuervo(1981, 13-14)와 Bello(1981, 713)는 비교접속사 *como*에 의해서 유도되는 구문에서 동일한 통사적 기능을 수행하는 요소들 사이에 비교가 이루어진다는 점에 근거하고 있다.

(45) a. Le miran como padre.

b. Los trata como a hijos. (Bello, 713)

(46) El duque dio nuevas órdenes de que tratase a Don Quijote como a caballero andante. (Bello, 713)

(47) No tiene el bien público mayor enemigo que a ellas (las pasiones) y a los fines particulares. (Cuervo, 13)

(48) El sol iluminaba el chorro de agua, como a las chispas de un soplete. (Roegiest, 146)

(45)b와 (46)은 *como* 뒤에 출현하는 명사가 대격이라는 표식으로 전치사 *a*를 사용한 전형적인 경우이고, Roegiest가 제시한 (48)의 예문이 잘 보여주듯이 '사물'목적어에도 적용된다. 예문 (47)은 *como*의 원급비교구문 이외의 문맥에서도 같은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45)a와 (45)b는 Bello가 지적한 것처럼, 전치사의 유무에 따라 명사가 지칭하는 의미의 차이가 유발된다. 즉, 전치사를 동반한 (45)b에서는 '친자식'의 의미가 강조되고 (45)a에서는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뉘앙스가 전달된다.¹⁹⁾

19) Cuervo는 바로 이러한 전치사의 유무에 따른 의미적 차이가 전치사 *a*에 강조적 의미를 부여했다고 간주한다. 즉, Cervantes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comieron aquel día con D. antonio algunos de sus amigos, honrando todos y tratando a D. Quijote como a caballero andante*와 같은 비교문에서 *como*이후에 전치사를 사용한 바 있다. (Cuervo, *op.*

주어와 목적어의 구분을 위한 대격 전치사 *a*의 사용은 목적어가 제2주어로서 원형동사의 주어역할을 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49) Vi pasar al grupo por la puerta entreabierta. (Roegiest, 143)

(50) Oyó entonces gemir al carro entero. (Ibid, 146)

이와 같은 구문들이 처음으로 기술된 것은 Roegiest (1980)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이후 Laca (1987, 297)도 재확인하여 전치사의 사용이 전통적으로 인정되어온 중의성의 회피현상의 일종이라고 간주한 바 있다.

또한, Roegiest (1980, 145)는 다음과 같은 병렬문(yuxtaposición)에서는 ‘사람’ 목적어의 영향으로 ‘사물’ 목적어에도 전치사가 사용되었다고 보는데,

(51) Les olvidaba a ellos y a la tierra ... (Roegiest, 145)

우리의 의견은 이 또한 주어와 목적어의 구분을 위한 변별기능의 전치사의 사용의 한 유형으로 여겨진다.

3.3.2. Distinción entre diferentes complementos

소위 전통적으로 대격의 이중적 사용(doble acusativo)이라 불리우는 구문에서는 목적어로 사용된 두 개의 명사중 하나가 다른 명사를 서술하게 되는데, 이때 목적어와 목적보어를 구분하기 위해서 목적어 앞에 전치사를 사용한다.

(52) Hacer santas a las prostitutas y hacer jefes de naciones a los locos y a los forajidos. (Roegiest, 146)

(53) Prefiero llamar *historia* y no *novela* a esta obra mía. (Ibid.)

이러한 현상에 대해 Roegiest (1980, 146)는 목적보어를 취할 수 있는 llamar, hacer, nombrar 등의 동사들로 이루어지는 구문에서 일어난다고 했

데, Laca(1987, 298)는 이를 2차적 서술(predicación secundaria)로 간주하여 다음과 같은 구문들도 동일한 계열로 간주한다.

- (54) Pero del mismo modo que veía tan lejana y distante a la ciudad.
(Roe-giest, 145)
- (55) La tormenta dejó sin hojas a los árboles. (Laca, 298)
- (56) a. La necesidad de argentinizar a la Argentina.
b. El hombre humaniza al mundo. (Fernández, 186)

즉, (54), (55)의 *tan lejana y distante* 와 *sin hojas*는 2차적 서술의 목적보어에 해당한다. 아울러, Laca는 (56)과 같은 경우, 그러한 2차적 서술이 통사적 수단 외에도 어휘적 수단 (-zar: argentinizar, humanizar)을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보았으며, Fernández Ramírez(1986, 187)도 이에 앞서 *argentinizar*는 'hacer + predicativo'의 의미를 지니며 전치사를 습관적으로 유도한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 또한, 1.2.에서 지적된 무인칭 구문에서의 대격 표식으로서의 전치사의 사용도 형태적으로 여격과 대격의 구분의 일종이다.

- (57) Se suele recibir a los reyes ... (Cuervo, 482)
- (58) Se tiene al melón como una fruta indigesta. (Roegiest, 146)

한편, 3.1.에서 잠시 언급한 바 있는 *suplemento*는 전치사를 통해서 유도된 목적어인데(hablar de política, pensar en eso), 형태적으로는 전치사구임에도 불구하고 기능상 상황소(complemento circunstancial o aditamento)보다는 오히려 직접목적어(complemento directo o implemento)에 가깝다. 따라서, 동사가 *suplemento*외에 형태적인 직접목적어를 취할 때 이 직접목적어는 의미상 간접목적어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Laca(1987, 301)는 이를 일종의 여격의 유추작용으로 간주하여 전치사 *a*가 사용된다고 본다.

- (59) a. Vamos a proveer de agua corriente a todas las casas.
b. Estas dificultades privan al proyecto de todo su atractivo inicial.(Roegiest, 301)

(59)a, b의 예문에 사용된 *proveer*, *privar*동사는 일반적으로 여격, 대격을 모두 취하는 *dar*, *quitar* 등의 동사와 의미적으로도 매우 유사하다는 점도 이러한 문맥에서의 전치사의 사용이 일종의 여격의 유추라는 점을 뒷받침한다.

4. Criterio pragmático

2장과 3장에서 우리는 주로 의미적 관점 및 통사적 관점 즉, 문법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대격 전치사 *a*의 사용여부를 규명해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문법적인 방법론의 한계는 모든 의미적, 통사적 조건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전치사의 사용이 순전히 화자의 발화의도에 의존되는 경우를 적절히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즉, 다음과 같은 예문들처럼,

- (60) a. Las bombas alejan el enemigo. (Fernández, 170)
- b. Fueron a buscar las mozas. (Ibid., 171)
- c. Vimos un indio raro que trataba de esconderse. (Ibid., 174)
- d. Enviaron emisarios al campamento romano. (Ibid., 167)
- e. Jamás había tratado él dama semejante. (Ibid., 168)

목적어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없이 전치사가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 막연히 사용된 명사의 한정성(determinación)의 정도로 사용된 관사의 차이 또는 유무로서 규명하는 형태적 분석만이 가능했을 뿐이다. 2.2에서 잠시 언급한 바 있는 Fernández Ramírez의 ‘한정성’에 대한 판단(persona actualizada, individualizada/persona hipotética: α/ϕ)은 성격상 ‘지시성’의 개념과 일치하고 있어 화용적 판단기준의 일종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더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Fernández Ramírez(1986, 175)는 원망, 필요, 탐구, 욕구의 의미를 가진 동사(*buscar*, *encontrar*, *necesitar*, *requerir* 등)들은 ‘사람’ 목적어를 취하더라도 전치사를 동반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는데, 대부분이 Leonetti (1990, 118)

가 분류하는 *verbos intensionales*에 속하며²⁰⁾ 논리적 관점에서 볼 때 명사구에 의해서 지칭된 대상의 존재를 언급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즉, 이와 같은 동사들은 한마디로 부정명사구(SSNN indefinidos)를 유도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Bello와 Fernández Ramírez의 ‘한정성’(determinación)의 개념은 명사구의 ‘지시성’(referencialidad)을 의미하고 구체적으로는 명사구의 ‘특정성’(especificidad)과 관련되어 있음을 가정할 수 있다.

E. Coseriu(1982, 282-323)는 명사구의 ‘한정성’의 정도를 ‘실재’ 또는 ‘실현화’(actualización), ‘차별화’(discriminación), ‘한정화’(delimitación) 및 ‘확인화’(identificación)의 과정으로 구분하였는데, 이 중에서 ‘실현화’ 및 ‘차별화’의 과정이 ‘한정성’의 정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실현화’의 과정은 추상적인 개념에 존재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ϕ /한정사(determinante)의 대립이라 할 수 있다.

(61) hombre / (un, el) hombre

‘차별화’의 과정은 ‘실현화’ 이후의 과정으로 이미 실현된 명사구를 구분하는 과정으로 ‘수량화’(cuantificación) → ‘개별화’(individualización) → ‘소재화’(localización)의 단계가 있다.

(62) un (dos) hombre(s) / los dos hombres / (mi, este) hombre.

여기에서 명사구의 ‘지시성’ 내지는 ‘특정성’을 가름하는 분기점은 ‘개별화’의 개념이라고 보여진다. 왜냐하면, Coseriu(1982, 300)는 다음과 같은 대립에 대하여,

20) Leonetti는 querer, desear, pretender, buscar, esperar, intentar, planear, ordenar, pedir, permitir, temer, dudar, necesitar 등이 *verbos intensionales*에 해당하며, 목적어에 의해서 표현된 상황이나 사물의 존재 또는 실현 여부에 관해서 어떠한 추론도 가능케 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고 했다. 한편, Karttunen은 *verbos intensionales*들은 *verbos no implicativos* (보어의 진위에 대한 유보적 동사)와 *verbos implicativos negativos* (종속문이 거짓임을 암시하는 동사)의 중간형태라고 간주한다. (Leonetti Jungl, M., *El artículo y la referencia*, Taurus Universitaria, Madrid, 1990, p. 118 참조.)

(63) Busco a un médico / busco al médico

전자의 경우 명사구의 ‘개별화’가 화자에게만 제한된 것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화자 및 청자에게 모두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부정명사구(SSNN indefinidos)의 경우에도 화자에게만 제한된 ‘개별화’를 통해서, 그 ‘지시성’이 확보되고 나아가서는 전치사를 동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Fernández Ramírez(1986, 173-174)가 ‘한정성’의 기준에 대한 자신의 가설에 비추어 다음의 예문들도 예외적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다.

(64) a. Veía Daniel a una mujer en la orilla.

b. Es preferible no ver a un hombre nunca. (Fernández, 174)

c. Encuentra a un viejo que conoce muy bien. (Ibid., 173)

그러나 (64)의 예문들은 일부의 부정명사구 문맥에 불과하고, 우리가 4장의 도입부분에서 나열한 (60)의 또 다른 부정명사구 및 정명사구 (SSNN específicos)와 전치사의 출현여부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Coseriu의 이론만으로는 충분한 규명이 불가능하다.

4.1. SSNN definidos

일반적으로 정명사구는 지시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humano, animado]의 자질만 갖추어지면 전치사를 동반한다. 그러나 정명사구는 ‘직위’ 또는 ‘기능’을 의미하거나(Bello, 530 참조), 총칭적 지시(referencia genérica: Coseriu, 297참조)를 의미하는 경우에는 지칭하는 대상의 ‘개별화’(individuación)가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앞서 나열한 (60)a, b는 총칭적 지시의 일종으로 간주하여 설명할 수 있다.

Laca(1987, 303)는 다음과 같은 예문들을 명사구의 수(singular/plural)와 관련하여 설명하는데,

(65) a. Ir sólo allí para ver la gente no vale la pena.

b. Un despertar doloroso sacude (...) la cristiandad entera.

집합명사가 개별적 구성원이 아닌 집단 전체를 지칭하다는 것은 결국 총칭적 지시에 해당하고 따라서 전치사가 사용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Leonetti (1990, 155)는 최상급(el coche más rápido del mercado), 역할, 기능, 직위(el jefe del departamento), 어떤 사건 또는 사물과 관련된 주체(el ganador de la carrera)를 표현하는 정명사구들은 비지시적 해석을 받기 쉽다고 했는데, Kany (1976, 20)가 중남미 서반아어의 특징적 현상이라고 간주한 다음과 같은 예문에서의 전치사의 부재를 설명할 수 있다.

(66) El corrector (=al corrector) de pruebas de alguna edición se le antojó rectificarla.

여기에서 문제화된 정명사구는 소위 테마의 위치(posición temática: Leonetti, 1990 참조)에 있기 때문에 Laca(1987, 308)가 근거하는 ‘주제성’(topicidad)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Laca의 주장에 대한 반증이 되기도 한다.

한편, Laca가 주장하는 ‘주제성’이 전치사의 사용과 밀접하다는 가설은 다음과 같은 문맥에 근거하는데,

(67) a. Cuando a un árbol consiguen matarlo...

b. A ninguna de esas cuevas se la ha visto acabar en las alcantarillas.

c. Los dejaban abandonados a los barquitos de papel.

(67)a, b는 구태여 화용적 판단기준을 적용할 필요도 없이 3.3.1.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명사구가 원형동사의 주어로서 사용되어진 문맥이라는 점에서 전치사의 사용이 가능하고, (67)c도 일종의 목적보어를 취하는 구문이기 때문에 3.3.2에서 언급했듯이 서로 다른 보어간의 구별을 위한 전치사의 사용으로 간주해도 무방하다. Laca는 (67)a, b, c에서 목적어로 쓰인 명사구가 대명사로 반복되어졌다는 점이 ‘주제성’을 확인해주고 따라서 전치사가 사용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여기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러한 ‘주제성’도 목적어의 반복이라는 통사적

수단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통사적 자질에 근접되어 있고, 화용적 자질인 명사구의 ‘개별화’(individuación)와는 무관하다고 볼 수 있다.²¹⁾

한편, Fernández Ramírez (1986, 183)는 *lo mejor, lo más* + *adjetivo* 등이 전치사 *de*를 이용하여 복수명사와 함께 명사구를 이루는 경우, 그 의미가 불특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전치사 *a*를 동반하는 다음과 같은 예문들을 제시한 바 있다.

- (68) a. El cultivo de la antigüedad clásica (...) contribuye, y mucho, a apartar a lo más florido de sus intelectuales de los fáciles.
 b. ¡Con qué facilidad he caracterizado a la mayor parte de los colosos del arte helénico (...)! (Fernández Ramírez, 183)

이 예문들은 Leonetti도 지적했던 것처럼 최상급을 표현하는 정명사구가 불특정적이라는 점과도 일치한다. 따라서, 불특정적 명사구는 일반적으로 전치사를 동반하지 않는다는 우리의 관점을 벗어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68)a, b 두 경우 모두 전치사가 사용되지 않는다면 명사구가 목적어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 불분명한 문맥임으로, 명사구의 ‘특정성’에 앞서 통사적 변별기능으로서의 전치사 사용이 우선적으로 적용된 경우라 할 수 있겠다.

21) Laca는 대명사의 이중적 사용이 전치사 *a*의 사용을 용이하게 한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y lo que van a hacer es que los van a transportar esos murales por medio de un procedimiento*에서 *los murales*가 대명사의 반복에도 불구하고 전치사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장자체가 일종의 방언적 오류라고 규정했다. 이와 같은 Laca의 판단은 전치사의 사용이 ‘주제성’(topicalidad)과 직결되었다고 믿기 때문인데, Laca가 근거하는 ‘주제성’은 Seco (1979, 98)도 잘 지적하였듯이, 대명사의 반복을 통한 강조적 표현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즉, *los saludó a ellos, no los he visto a tus hermanos* 등의 표현에서도 잘 드러나듯이 대명사의 의미가 불분명하여 목적어를 다시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앞서 지적한 Laca의 문장도 ‘사물’ 목적어이기 때문에 전치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정문이라 할 수 있다 (Laca, *op. cit.*, p. 30 참조). Kany도 직접, 간접 목적으로 사용된 ‘사람’ 목적어가 동사 앞에 전치하여 문두에 위치하는 경우에 전치사 *a*가 생략되는 것이 스페인과 중남미에서 흔히 발견된다고 하였으며 (*este mendigo (=a este mendigo) nadie le conoce, Juan tonto (=a Juan tonto) le dijo su madre que buscaría novia para casarse*), 이는 감정적 강조(*énfasis emocional*)를 문장에 부여하기 위하여 목적어가 전치된 경우이며 스페인에서는 교육수준이 낮은 일반 대중에서 자주 발견되고, 중남미에서는 몇몇 지방에서 일반화 되어 사실주의 문학에서 자주 접할 수 있다고 한다. (Kany, C.E., *Sintaxis Hispanoamericana*, Gredos, Madrid, 1976, p. 19 참조.)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정명사구의 ‘개별화’(individuación)에 근거하여 전치사의 출현여부를 결정하는 분석도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다.

(69) a. Yo mismo he visto los trabajadores de Gibraltar con camisas y pantalones caquis.

n. Veía a los camareros con las chaquetas blancas. (Fernández, 171)

(70) a. Aquí tenía mis amos cuando fui a la guerra.

b. ¿Necesitaré describir este joven? (Fernández, 172)

(69)와 (70)에 나열된 정명사구들은 모두 구체적으로 지칭하는 대상이 존재하며, 특히 (68)의 경우에는 Coseriu가 언급한 ‘차별화’(discriminación)의 마지막 단계인 ‘소재화’(localización)도 이루어진 경우이다. (70)a처럼 전치 소유사(posesivo antepuesto)의 한정을 받는 명사구는 Coseriu(1982, 302)의 판단대로 전치소유사가 항상 ‘개별화’를 이끌지는 않는다는 점에 근거하여 전치사가 사용되지 않았다고 설명할 수 있겠으나, (70)b의 경우에는 ‘개별화’를 항상 이루어내는 지시사(deítico)가 명사구를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또한, (69)a, b가 보여주는 전치사의 교호적 사용은, Donellan(1966, 1978)이 언급한 바 있는 정명사구의 지시적/비지시적(referencial/atributivo) 사용이 화자의 의도에 의존한다는데 근거하여 (69)a의 정명사구를 불특정(inespecífico)으로, (69)b의 정명사구를 특정(específico)으로 간주하여 설명할 수도 있겠으나, 그러한 화용적 판단은 문장을 구성하는 요소와는 무관하게 오로지 발화상황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약화된다.

Allan(1986, 144-145, 재인용, Leonetti, 161-162 참조)은 비지시적 의미를 지니는 명사구를 다음의 네 유형으로 나누고 있는데,

(i) 부정(negación)의 범주내에 포함되어 지시물의 부재를 나타내는 명사구(no hay un taxi libre).

(ii) 발화시점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앞으로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기대되는 경우(me haré un bocadillo).

(iii) 발화시점에 존재여부가 불분명한 경우(¿hay huevos en la nevera?).

- (iv) 불특정, 비한정을 의미하는 경우(cualquier perro se enfadaría si le pisaras la cola).

앞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70)b와 같은 예문에서의 전치사의 부재를 Allan의 (ii)유형의 일종으로 간주하여 설명할 수 있겠다.

4.2. SSNN indefinidos

정명사구의 ‘개별화’ 내지는 ‘특정성’(especificidad)은 4.1에서 살펴본 것처럼 문장의 범주를 벗어나 발화상황과 오히려 더 밀접하게 관련함으로써 ‘지시성’의 판단을 어렵게 유도하지만, 부정명사구는 일반적으로 문맥적 상황만으로도 ‘지시성’을 판별하기가 용이하다. 우선, Fernández Ramírez(1986, 173)가 전치사의 비정상적인 교호로 규정한 다음과 같은 관계문에서,

(71) a. Encuentra a un viejo que conoce muy bien.

b. ¿Por qué no (...) piensas en encontrar un novio que te convenga?

부정명사구를 수식하는 관계문이 직설법인 경우에는 ‘지시문’에 대한 존재의 전제(presuposición existencial)가 성립되고 따라서 부정명사구는 ‘특정성’을 부여받음으로써 전치사가 동반되며, 접속법의 경우에는 존재의 전제가 유보됨으로써 Allan이 제시하는 (iii)유형과 일치하므로 부정명사구는 불특정적 해석을 부여받고 결과적으로 전치사의 출현이 제한받는다고 볼 수 있다.

4장의 도입부에 제시한 (60)e (jamás había tratado él dama semejante)는 다음과 같은 예문들과 같은 유형으로서 부정명사구가 부정(negación)의 범주내에 포함되어 지시물의 부재를 문맥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이다.

(72) No he conocido hombre más cabal. (Fernández, 168)

Fernández Ramírez(1986, 166)는 명사가 품질형용사의 수식을 받는 경우 일반적으로 전치사를 동반하여 (72)a, b와 같은 경우가 일종의 비정상적인 문맥이

라 하였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부정(negación)의 적용범주와 관련하여 지시물의 존재여부에 관한 전제를 구태여 적용하지 않더라도, Coseriu(1982, 306)의 ‘한정화’(delimitación) 개념만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다. 즉, Coseriu는 ‘한정화’는 ‘실현화’(actualización)된 명사구에 있어서는 변별적인 특정성(especificación distintiva)을 의미하지만, ‘실현화’하지 않은 명사구에서는 개념적인 한정도 가능하다고 했는데(hombre/hombre blanco), (72)a, b에 도입된 명사들은 실현화되지 않은 명사구의 의미적 한정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60)d (enviaron emisarios al campamento romano)의 전치사의 부재도 부정명사구의 불특정성(SSNN inespecíficos)으로 설명가능하고, 다음과 같은 예문들도 앞서 나열한 (72)a, b의 경우처럼 불특정 명사구의 의미적 한정의 한 유형으로 간주할 수 있다.

(73) a. No queremos a nuestro lado falsos doctores.

b. Cada vez fue más difícil encontrar arrendatarios libres.
(Fernández, 166)

(73)a, b의 경우에는 부정명사구가 *verbos intensionales*에 의해 유도되었기 때문에 불특정의미가 더욱 용이하게 확인된다. 이와 관련하여, Fernández Ramírez(1986, 167)는 다음과 같은 문맥에서 전치사의 출현이 예외적인 현상이라고 간주하였는데,

(74) a. Hubo que alquilar para este oficio a dálmatas.

b. No vamos a comprar aquí a rejoneadores de uno y otro país.

Laca (1987, 303)가 지적한 것처럼, 명사구가 ‘지시성’이 결여되어 있다기 보다는, 불특정적 지시물의 한 유형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전치사의 사용이 비정상적이라 할 수 있는데, Fernández Ramírez의 주장대로 전치사의 사용이 합리화되려면 명사구들은 정관사를 동반해야 마땅할 것이다(a los dálmatas, a los rejoneadores).²²⁾

22) Fernández Ramírez는 다음과 같은 문장에서 정관사를 사용하는 것이 문맥적으로 바른 것

마지막으로 (60)c (*vimos un indio raro que trataba de esconderse*)와 같은 경우에 대해 적절한 설명을 하자면, 이는 부정명사구임에도 불구하고 직설법 관계문의 수식을 받고 있어 지시물이 완벽하게 ‘특정’하다고 할 수 있어 절대적으로 전치사를 사용해야하는 문맥인 것이다. 따라서, Kany (1976, 19-24)가 수록한 예외적인 경우처럼 전치사의 사용이 지리적 요인(*factor dialectal*) 또는 개인의 특성(*características idiosincrásticas*) 등의 언어외적 요인에 의해서 좌우되는 경우로 간주할 수 밖에 없겠다.

5. Conclusión

1장에서 우리는 대격 전치사 *a*의 사용에 대한 통사적인 연구들을 분석하였으며, 이들을 크게 ‘생물’/‘무생물’ 목적어의 구분(1.1), ‘중의성’의 회피 (1.2), 여격의 유추(1.3)라는 세 가지 판단기준으로 분류해 보았다. 우리의 판단으로는 대격 전치사 *a*의 사용의 발생은 시기적으로 라틴어에서 로망스어로의 분화과정속에서 대격과 여격의 혼란된 사용으로부터 비롯되었으며, 여격이란 본래 ‘사람’ 목적어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중의성’의 회피라는 점도 그 근원이 ‘생물’(특히 ‘사람’)목적어가 가능한 동작의 주체로 해석되는 것을 막기 위한 변별적 의도에 기인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대격 전치사 *a*의 사용은 역사적으로 (i)여격의 유추 (ii)생물목적어의 적용 (iii)사물 목적어로의 확대의 순서로서 이르렀다고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통시적 관점은 대격 전치사의 공시적 사용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어, 우리는 이를 논리적 의미적 기준(2장), 통사적 기준(3장), 화용적 기준(4장)으로 분류하여 가장 일반성 있는 판단기준이 무엇인가를 분석하였다.

이라고 주장했는데,

- 1) *ofreciendo pacificar a segedanos y arévacos* (=a los segadores y a los arévacos),
- 2) *apedrean con castañas a cabezudos, gigantes y alguaciles que protegen la procesión* (=a los alguaciles...)

이 두 문장과 (74)a, b에 사용된 복수명사들은 모두 형용사에서 유래하였기 때문에 다른 명사들과는 달리 그 기술적 의미(*valor descriptivo*)가 구체적(*concreto*)이어서 어찌면 고유명사적인 기능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전치사 *a*의 사용이 유도되었다고 볼 수 있다. (Fernández Ramírez, *op. cit.*, p. 167 참조.)

논리적, 의미적 분석에서는 Bello가 정의한 명사구의 ‘인칭성’(2.1)과 ‘한정성’(2.2)을 최대한 확대해석하여 명사의 성분분석(2.1)과 아울러 관사를 통한 형태적인 ‘한정성’의 판단의 한계를 지적하였으며(2.2), 통사적 분석에서는 우선적으로 *a+sust.acus.*가 전치사구(Sprep)가 아닌 명사구(SN)라는 점을 확인한 연후에(3.1) 동사의 의미적 분류와도 일치하는 통사적 지배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전치사의 출현과 동사와의 관계를 규명하려 했고(3.2), ‘중의성’의 회피라는 순수한 통사적 관점에서 어떠한 통사적 요인에 의해서 전치사가 유도되는가에 관하여 여러 유형의 문맥들을 분석하였다(3.3).

마지막으로, 우리는 의미적 기준 및 통사적 판단기준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맥들-주로 전치사의 사용이 교호적인 문맥-을 설명하기 위하여 명사구의 ‘실현화’, ‘차별화’ 및 ‘지시성’, ‘개별화’ 또는 ‘특징성’을 정명사구(4.1)와 부정명사구(4.2)로 분리하여 가능한 화용적 해석을 시도 하였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대격 전치사 *a*의 사용이 다음과 같은 판단기준에 의해서 적용된다고 생각한다.

- (i) 명사구의 ‘인칭성’(personalidad): [+humano, animado]/[-humano, inanimado]
- (ii) 명사구의 통사적 제약.
- (iii) 명사구의 ‘한정성’(determinación): referencial/no referencial, específico/inespecífico

명사구의 ‘인칭성’은 humano>animado>inanimado의 순서로 적용되고, 명사구의 통사적 제약은 주어와 목적어의 구분 및 서로 다른 기능의 목적어(보어)들간의 구분으로 양분되어 적용되고, 명사구의 ‘한정성’은 사용된 명사구의 ‘지시성’의 유무 및 그 ‘지시성’의 ‘특징성’(‘개별화’)의 유무에 의거하여 적용된다. 또한, (i)과 (ii)는 ‘사물’ 또는 ‘사람’ 목적어에 공히 적용되고, (iii)은 주로 ‘사람’(또는 ‘생물’) 목적어에 적용된다.

참고문헌

- Alarcos Llorach, E.(1984), *Estudios de gramática funcional del español*, Gredos, Madrid.
- Bello, A. (1981), *Gramática de la lengua castellana*, ACT, Tenerife.
- Cano Aguilar, R. (1981), *Estructuras sintácticas transitivas en el español actual*, Gredos, Madrid.
- Coseriu, E. (1982), *Teoría del lenguaje y lingüística general*, Gredos, Madrid.
- Cuervo, J. R. (1953), *Diccionario de construcción y régimen de la lengua castellana*, Bogotá.
- _____ (1981), *Notas a la gramática de don Andrés Bello*, Bogotá.
- Fernández Ramírez, S. (1986), *Gramática española: 4. El verbo y la oración*, Arco/Libros, Madrid.
- Fish, G.T., "A with Spanish Direct Object", *Hispania*, pp. 80-85.
- Geckeler, H. (1984), *Semántica estructural y teoría del campo léxico*, Gredos, Madrid.
- Gili Gaya, S. (1963), *Curso superior de sintaxis española*, Bibliograf, Barcelona.
- Hanssen, F. (1945), *Gramática histórica de la lengua castellana*, Buenos Aires.
- Hatcher, A.G. (1942), "The use of *a* as a designation of the Personal Accusative in Spanish", *MLN* 57, pp. 421-429.
- Hills, "The accusative A", *Hispania* III, pp. 216-222.
- Kany, C.E. (1976), *Sintaxis hispanoamericana*, Gredos, Madrid.
- Laca, B. (1987), "Sobre el uso del acusativo preposicional en español", *Romanistisches Jahrbuch* 38, pp. 290-311.
- Lapesa, R. (1964), "Los casos latinos: restos sintácticos y sustitutos en español", *BRAE*, XLIV, pp. 57-105.
- Leonetti Jungl, M. (1990), *El artículo y la referencia*, Taurus Universitaria, Madrid.

- Maier, H. (1948), "Sobre as origens do acusativo preposicional nas linguas romanicas", *Ensaïos de filologia romanica*, pp. 115-164.
- Meyer-Lübke (1974), *Grammaire de langues romanes*, Gêneve-Marseille.
- Morera, M. (1984), *Estudio semántico del sistema preposicional del español contemporáneo*, Univ. de la laguna, Tenerife, Tesis doctoral.
- _____ (1989), *Sintaxis lingüística vs. sintaxis lógica: La complementación sustantiva del verbo español*, Tenerife.
- Porto Dapena, J. A. (1992), *Complementos argumentales del verbo: directo, indirecto, suplemento y agente*, Arco/Libros, Madrid.
- RAE (1973), *Esbozo de una nueva gramática de la lengua española*, Espasa-Calpe, Madrid.
- Ramson, H. (1961), "The use of A + Personal Pronoun in Old Spanish", *Bulletin of Hispanic Studies*, 38, pp. 42-54.
- Rebollo Torio, M.A. (1976), "Algunas observaciones sobre la presencia/ausencia de *a* más complemento directo", *RLA*, 14-15, pp. 49-57.
- Roegiest, E. (1980), *Les prépositions A et De en espagnol contemporain*, Gent.
- Seco, R. (1979), *Manual de gramática española*, Aguilar, Madrid.
- Trujillo, R. (1981), "Notas para un estudio de las preposiciones españolas", *Thesaurus*, XXVI, pp. 3-48.

LA PREPOSICION A ANTE EL COMPLEMENTO DIRECTO

Eun-Gung, Kim

En el primer capítulo hemos recorrido la evolución de la presencia/ ausencia de la preposición *a* ante el complemento directo mediante el análisis de estudios existentes que podemos agruparlos según tres tipos: i) los que se centran en la distinción animado/inanimado del objeto directo, ii) los que justifican la presencia de *a* para evitar la ambigüedad y iii) los que abogan por el uso de *a* por analogía al dativo.

Según nuestro punto de vista, la preposición *a* ante el acusativo proviene de la confusión entre el dativo y el acusativo ya desde el proceso de evolución del latín a las lenguas romances. El dativo, por su característica primitiva de admitir un objeto humano, ha sido la motivación que dio lugar a la analogía de que la preposición *a* apareciera también ante el acusativo humano. La preposición *a* de desambiguación se ha empleado para que el acusativo animado (particularmente humano) no se interpretara como agente potencial de la acción verbal, por lo que podemos resumir que históricamente la preposición *a* surgió primero por analogía al dativo, luego, se ha aplicado al acusativo animado y finalmente, se ha extendido hasta al acusativo inanimado.

Desde el punto de vista sincrónico, hemos estudiado la presencia de *a* con criterio lógico semántico (capítulo 2), con criterio sintáctico (Cap. 3) y con criterio pragmático (Cap. 4). En el análisis lógico semántico, hemos revisado las definiciones de Bello que se basan en los conceptos de personalidad y determinación dándoles una amplia interpretación. Hemos hecho un análisis componencial de los sustantivos y hemos señalado los límites de la determinación motivada simplemente por el uso del artículo. En el análisis sintáctico primero hemos indicado que la forma *a* + *sust. acus.* no es Sprep

sino, SN. Ante todo, hemos considerado el régimen verbal haciendo una clasificación de los verbos en relación con la preposición *a*. Luego, hemos analizado contextos específicos que introducen la preposición *a* por causas meramente sintácticas.

Finalmente, en el análisis pragmático hemos introducido los conceptos de 'actualización', 'discriminación', 'individualización' y 'determinación' para explicar los contextos de alternancia de la preposición *a* que no había encontrado solución mediante los análisis anteriores. En conclusión, podemos resumir que la preposición *a* se usa bajo los siguientes criterios:

- i) Personalidad: [+humano, animado]/[-humano, animado],
- ii) Restricciones sintácticas de los SN,
- iii) Determinación: referencial/no referencial, específico/inespecífico.

La personalidad de los SN se aplica en el orden humano> animado> inanimado. Las restricciones sintácticas se aplican primero, en la distinción entre el sujeto y el objeto directo y luego, entre complementos. La determinación se aplica primero en la distinción de los sintagmas referenciales y no referenciales y luego, con los sintagmas nominales referenciales en la distinción entre sintagmas nominales específicos e inespecíficos. Los criterios i) y ii) se aplican tanto al acusativo humano como al inhumano y el criterio iii), principalmente al acusativo humano.